



초중고 학생 3.4% “학교폭력 피해”

도교육청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피해 응답률 전반적 증가세… 초등생 피해 응답 7.0%
언어폭력 38.9%로 가장 많고 집단따돌림·신체폭력 순

제주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학교폭력 저연령화 추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제주도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전국 초중고 재학생(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다. 도내 설문 대상은 5만 8583명으로, 이 중 4만 7735명(81.5%)이 참여했다. 올해 조사에 선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을 물었다.

조사 결과 이 기간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도내 학생은 3.4%(1642명)였다. 이는 전년도 피해 응답률(3.1%)보다 0.3%p 높은

수치다. 올해까지 최근 5년 중에서도 가장 높았다. 피해 응답률은 2022년 2.6%, 2023년 2.9%, 2024년 2.8%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피해 응답률은 특히 초등학교에서 높았다. 도내 초등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비율은 7.0%(1012명)로 중학생(2.5%, 424명), 고등학생(1.3%, 204명)보다 최대 5.7%p 높았다. 이는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추세를 보여준다고 도교육청은 분석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언어폭력이 38.9%(114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따돌림(16.4%, 481명), 신체폭력(15.8%, 464명), 사이버폭력(6.3%, 186명), 금품갈취(6.1%, 179명)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강요(6.0%, 175명), 성 관련(5.5%, 162명), 스토킹(4.8%, 142명) 등의 피해도 있었다.

학교폭력 대부분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발생 장소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2.2%(2285명)가 교실이나 복도, 계단 등 ‘학교 안’을 꼽았다. 이 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교실 안’(27.4%)이었다. 이어 복도·계단(15.8%), 운동장·체육관·강당(13.7%), 화장실(5.5%) 등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학교 밖’을 피해 장소로 가리킨 응답자는 27.8%(879명)였다. 주된 피해 장소로 지목된 것은 ‘사이버 공간’(6.5%)이었다. 이와 함께 공원이나 놀이터, 학교 밖 체험활동, 학원 등도 피해 장소로 거론됐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도 매년 늘고 있다. 학교폭력 목격 응답률은 2022년 5.7%에서 올해 8.3%로 2.6%p 증가했다. 학교폭력 가해 응답률은 같은 기간 1%대에서 오르

고 내리다 올해 1.1%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유형과 추세를 면밀히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저학년부터 관계 회복 중심의 맞춤형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10일 오후 5시쯤 제주도교육감실 점검 농성을 시도하고 있다.

김지은기자

“온열질환 발생해도 근본 대책 수용 않아”

교육공무직 노조, 어제 교육감실 점거 시도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한 폭염 대책 시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던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노동자들이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교육감실 점거 농성을 시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파업 7일 차인 10일 오후 5시쯤 이들이 제시한 온열질환 예방 대책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행동에 돌입했다. 다만 도교육청 교육감실 입구에서 교육청 직원 등에 가로막혀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했다. 노조 측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고성이나 오가는 등 충돌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노조 측은 현재(오후 5시 30분 기준) 고 교육감과의 대화를 촉구하며 교육감실 입구를 지키고 있다.

앞서 제주지부는 같은 날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제주유아교육진흥원과 도교육청에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까지 관련 답변이 오지 않아 교육감실 점거농성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7월 회천분원의 야외 체면을 운영하던 노동자(유치원 방과후전담사) 2명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지자 전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폭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다.

김지은기자

“풍력발전사업 조례 개정안 중단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 어제 성명 통해 심사 보류 촉구

“풍력자원 공유화 원칙 훼손… 민간사업 특혜 우려”

제주 환경단체가 풍력발전사업 조례개정안이 풍력자원 공공 관리 원칙을 후퇴시킨다며 심사 보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는 풍력자원 공유화 원칙을 훼손하는 조례 개정안 심사를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지적하는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제454회 제1차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이번 조례 개정은 대규모 추자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한 개발이익 공유 방식을 변경하려는 제주도의 의도가 반영됐다”며 “10여 년간 지켜온 바람 자원의 공공 관리 원칙이 흔들리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별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추자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현재 이익공유금 부담 방식 때문에 사업자가 포기했다고 판단해 주민참여 배당 구조로 변경하려는 것”이라며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자의 이익공유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제시됐다는 점에서 풍력자원 공유화 원칙의 후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풍력개발 사업자는 주민참여에 의한 배당금 지급을 개발이익의 공유화 계획으로 내놓고, 도는 이를 수용할 것”이라며 “결국 도민 전체에 내야 할 공적기금 납부 의무를 회피하고 사업자에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편법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사업자 편법 특혜를 방지하고 도민의 공공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전면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女화장실 침입 사건도 송치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제주 경찰관이 성범죄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7월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서부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남자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서 여자화장실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성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지난 4일 A경장을 송치했다. 양유리기자

AI로 경찰신분증 위조해 강도 30대 집유

제주지법 “반성·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인공지능(AI)으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이용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서법육 부장판사)는 10일 강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7일 새벽 제주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약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AI로 위

조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고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전날 다른 피해자에게 현금 100여 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한데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도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 010-4450-43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2026년 예약 중 보조사업 가능